



<span style="color:red">↑</span> 코스피 3258.63 (+6.50)	<span style="color:blue">↓</span> 코스닥 997.37 (-0.04)
<span style="color:red">↑</span> 금리 (미국 3년) 1.289 (+0.002)	<span style="color:red">↑</span> 환율 (원/달러) 1117.00 (+0.30) (15일)



[경제종합]  
택배 파업 장기화  
유통가 비상  
03

# 이베이發 이커머스 지각변동 쉽 없는 M&A로 선두 노린다

이커머스 3위 '이베이' 인수전  
오늘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예상  
'4조 베팅' 신세계 인수 가능성  
성사 땀 단숨에 업계 2위로 우뚝  
카카오, 카카오커머스 흡수합병  
선물하기 등 차별화로 몸집 키워



올 하반기 주요 기업들의 M&A(인수·합병)와 이에 따른 합종연횡의 영향으로 이커머스 시장 지형도가 새로 그려질 예정이다. 선두권에 안착한 기업들만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 전망이다.

가장 큰 이슈는 단연 이베이코리아 인수전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베이코리아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는 16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로 알려진 미국 이베이 본사의 연례 이사회 직후 이베이코리아 인수 우선협상대상자가 발표된다.

앞서 7일 이베이코리아 인수전에는 유통업계의 전통 라이벌인 롯데와 신세계가 최종 후보로 올랐다. 롯데는 단

독으로, 신세계는 네이버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가했다.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가 약 4조원의 인수가격을 제시하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3조원 중반의 가격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전에서는 가격이 승패를 결정짓는 큰 요인이기 때문에 신세계가 이베이코리아를 품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이커머스 시장 거래액은 네이버쇼핑(28조원), 쿠팡(22조원), 이베이코리아(20조원)순으로 많다. 롯데온(ON)은 7조6000억원, SSG닷컴

은 3조9000억원에 그치는 수준이다. 신세계가 이베이코리아를 품으면 단숨에 업계 2위로 올라설 수 있다. 여기에 오프라인 경쟁력까지 합쳐지면 그야말로 유통 공룡으로 우뚝 설 수 있다.

문제는 이베이 본사에서 기대했던 금액과는 거리가 있어 무위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이베이는 이베이코리아의 몸값을 5조~6조원으로 바라봤다.

카카오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전자상거래 전문 회사인 카카오커머스를 다시 품는다.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커머스를 합병하기로 하고 오는 22일 이사회를 개최, 관련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르면 3분기 안에 카카오가 카카오커머스를 100% 흡수 합병할 전망이다. 2018년 12월 카카오에서 분사시킨 카카오커머스를 다시 품는 이유는 하나다. 카카오와 이커머스 사업을 연결시켜 규모감있게 사업을 키우려는 것.

카카오는 카카오커머스의 '선물하기' '톡스토어' '카카오쇼핑 라이브' 기능을 강화하며 차별화 전략으로 소비자를 공략할 계획이다. (4면에 계속)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코스피,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

15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50포인트(0.20%) 오른 3258.63에 마감하며 이틀 연속 증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04포인트(0.00%) 내린 997.37,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3원 오른 1117.0원에 마감했다. /뉴스

# “50인 미만 中企 주52시간제, 유예 없다”

정부,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  
인력난 영세 사업장 타격 클 듯



5개 경제단체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52시간제 대책 촉구' 관련 경제단체 공동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주52시간 근무제는 별도 계도기간 없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제단체들의 주52시간제 1년 이상 계도기간 요구에 정부는 “더 이상 유예는 없다”고 못 박았다. 주52시간제 시행에 보름이 채 남지 않았지만 절반에 가까운 중소기업들은 준비 부족을 호소하고 있어 후유증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5~49인 사업장에 주52시간제 시행을 유예하려면 다시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제도가 시행된지 3년이 지났고, 이미 계도 기간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또 다시 유예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주52시간제 현장안착’ 브리핑을 열 예정이었지만 돌연 16일로 연기했다. 다음 달 50인 미만 기업의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여·야당

과 협의할 내용이 남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전날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가 주52시간제 대책을 촉구하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한 이후 브리핑을 미룬 것이어서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고용부가 과장이 커질 것을 우려해 정치권에 주52시간제 관련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려는 의도라는 주장도 나온다.

주52시간제는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연장근로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국회는 지난 2018년 2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같은 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올해 7월부터 규모·업종별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52시간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주52시간제 도입 후 예견치 못했던 ‘코로나19’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영·인력난에 허덕이는 영세 사업장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타격을 클 것으로 우려된다.

경제단체들은 특히 뿌리·조선업, 건설업 등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거나 납기일에 맞춰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기업에 추가적인 준비 기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2면에 계속)

/세종=원승일 기자 won@

# ‘수도권 공략’ 건설사 5곳 정비사업 수주 ‘1조 클럽’

수도권 리모델링 사업 집중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등 건설사 5곳이 올 상반기에만 도시정비사업에서 각각 1조원이 넘는 수주액을 달성했다. 주요 건설사들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리모델링 사업에 집중한 결과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해외사업 축소로 어려움을 겪자 정비사업 수주에 집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1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정마을9단지 리모델링사업(2280억원)을 시작으로 ▲마포구 합정동 447 일원 가로주택사업(504억원) ▲대전 도마·변동1구역 재개발사업(1906억원) ▲대구 신암10구역 재건축사업(1813억원) ▲용산구 한남시범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731억원) ▲의정부시 금오생활권1구역 재개발사업(1440억원) 등 꾸준히 수주를 늘렸다. 이달 22일에는 전주시 하가구역 재개발사업(4246억)을 따내며 누적수주액이 1조2919억원을 기록했다.

대우건설은 ▲서울 동작구 흑석11구역(4501억원) ▲노원구 상계2구역(2865억원) ▲경기 남양주시 진주아파트 재건축(1024억원) ▲경남 창원시 신원3구역(1881억원)을 수주하면서 이달까지 단일 수주액 1조271억원을 달성했다. 리모델링 공동 컨소시엄 수주액을 포함하면 총 수주액은 1조2012억원이다.

GS건설도 이달 누적 수주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 GS건설은 지난 3월 대구 서문지구 재개발(2196억원)을 시작으로 ▲창원시 신원1구역 재건축(5554억원) ▲서울 문정 건영아파트 리모델링(2207억원) ▲잠실현대아파트 리모델링(933억원) 공사까지 4건을 수주하며 총 수주액이 1조890억원을 넘어섰다.

DL이앤씨는 리모델링에서만 1조원을 달성했다. DL이앤씨는 지난 12월 열린 경기도 산본 울곡아파트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총 공사비는 4950억원(DL이앤씨 입찰가 기준) 규모다.

(3면에 계속)

/정연우 기자 ywj964@

##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15일 코로나19 확진자 이틀 연속 300명 대... 2차 접종 326만명  
▲ 경찰, 광주시청·동구청 압수수색... 붕괴 참사 수사 /사진 뉴스

▲ “일본, 한국내 재산 공개하라”... 위안부 피해자들 승소  
▲ 이준석 “부동산 전수조사 檢에 맡겨”... 김기현 “잘 몰라”



▲ 김 총리 “남북, 코로나 협력-이산가족 화상 상봉부터 하자” /사진 뉴스  
▲ 정은경 “타이레놀” 발언에 유통량 60% ↑... 의약시장 ‘휘청’